# 바킹독 0x03 - 배열





배열은 메모리 상에 원소를 연속하게 배치한 자료구조입니다.

원래 C++에서는 예를 들어 int arr[10]; 으로 배열을 선언한 뒤에는 arr의 길이를 변경하는게 불가능하지만,

자료구조로써의 배열에서는 길이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.

## 0x00 정의와 성질



- 1. O(1)에 k번째 원소를 확인/변경 가능
- 2.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메모리의 양(=overhead)가 거의 없음
- 3. Cache hit rate가 높음
- 4. 메모리 상에 연속한 구간을 잡아야 해서 할당에 제약이 걸림

4

- 배열은 메모리 상에 원소를 연속하게 배치한 자료구조이라서 k번째 원소의 위치를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. 시작 주소에서 k칸 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 기 때문에 k번째 원소를 O(1)에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메모리는 다른 자료구조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메모리의 양이 거의 없습니다.
- 메모리 상에 데이터들이 붙어있으니까 Cache hit rate가 높습니다.
- 메모리 상에 연속한 구간을 잡아야 하니 할당에서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.

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, 1번 성질은 사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활용했던 성질이고, 2번, 3번, 4번 성질은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코딩테스트를 칠 때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.

배열의 기능과 구현

• O(1)

배열의 임의의 위치에 있는 원소를 확인/변경 배열의 끝에 원소를 추가(끝자리에 값을 쓰고 길이를 1 증가) 배열의 마지막 원소를 제거(길이를 1 줄이면 됨)

• O(N)

0x01 기능과 구현 임의의 위치에 원소를 추가, O(N)												
	0	1	2	3	4	5	6	7	8	9		
	2	4	6	13	-2	1	3	0	5	6		
<b>↓</b>												
	0	1	2	3	4	5	6	7	8	9	10	
	2	4	6	13	-2	15	1	3	0	5	6	
												8



<배열의 크기(입력 데이터의 크기)가 N이라고 가정>

임의의 위치(끝을 제외한 모든 위치)에 있는 원소를 추가/제거 최악의 경우 (index 0에 원소를 추가/제거) N-1개의 원소를 땡겨야 하므로 시간복잡도 = O(n)

ex. 2번 원소를 지우게 되면 오른쪽에 위치한 모든 원소를 한칸씩 땡김

### -> 배열의 특징인 '연속성' 생각!

```
#include <bits/stdc++.h>
  using namespace std;
  void insert_test();
  void erase_test();
  void insert(int idx, int num, int arr[], int& len);
  void erase(int idx ,int arr[], int& len);
  void printArr(int arr[], int& len);
  int main(void) {
    insert_test();
    erase_test();
  }
  void insert_test(){
    cout << "**** insert_test ****\n";</pre>
    int arr[10] = \{10, 20, 30\};
    int len = 3;
    insert(3, 40, arr, len); // 10 20 30 40
    printArr(arr, len);
    insert(1, 50, arr, len); // 10 50 20 30 40
    printArr(arr, len);
    insert(0, 15, arr, len); // 15 10 50 20 30 40
    printArr(arr, len);
  }
  void erase_test(){
    cout << "**** erase_test ****\n";</pre>
    int arr[10] = \{10, 50, 40, 30, 70, 20\};
    int len = 6;
    erase(4, arr, len); // 10 50 40 30 20
    printArr(arr, len);
    erase(1, arr, len); // 10 40 30 20
    printArr(arr, len);
    erase(3, arr, len); // 10 40 30
    printArr(arr, len);
  }
  void insert(int idx, int num, int arr[], int& len){
      for(int i = len-1; i > idx; i--)
          arr[i] = arr[i-1];
      arr[idx] = num;
  }
  void erase(int idx, int arr[], int& len){
      for(int i = idx; i < len-1; i++)
      {
          arr[i] = arr[i+1];
      len--;
```

```
void printArr(int arr[], int& len){
  for(int i = 0; i < len; i++) cout << arr[i] << ' ';
  cout << "\n\n";
}
</pre>
```

전체를 특정 값으로 초기화시킬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?

- 그냥 for문을 돌면서 값을 하나하나 다 바꾸는 방식, 코드가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실수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난하고 좋습니다.
- algorithm 헤더의 fill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, fill 함수는 실수할 여지도 별로 없고 코드도 짧으니 익숙해진다면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.
- first는 초기화 하고 싶은 부분의 시작 주소, last는 끝 주소, val은 초기화할 값이다. <u>first</u>
   는 포함하고, last는 포함하지 않음을 주의한다. [first, last)

```
void fill (ForwardIterator first, ForwardIterator last, const T& val) fill(a, a+21, 0); //1 차원 \ \text{thg} for(int i = 0; i < 21; i++) //2 차원 \ \text{thg} \{fill(b[i], b[i]+21, 0); }
```

#### STL vector

```
http://www.cplusplus.com/reference/vector/vector/
```

vector는 배열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료구조이다.

배열과 마찬가지로 원소가 메모리에 연속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O(1)이며, 인덱스를 가지고 각 원소로 접근 가능하다.

크기를 자유자재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배열과 차이가 있다.

#### vector example

```
#include <bits/stdc++.h>
  using namespace std;
  int main(void) {
   vector<int> v1(3, 5); // {5,5,5}, 3개의 원소를 가지는 int형 vector v1 생성 후 5로 초기화
   cout << v1.size() << '\n'; // 3, vector v1의 원소 갯수
   v1.push_back(7); // {5,5,5,7}, vector v1의 끝에 7 추가
   vector<int> v2(2); // {0,0}, 2개의 원소를 가지는 int형 vector v2 생성, 기본값(0)으로 초기화
   v2.insert(v2.begin()+1, 3); // {0,3,0}, vector v2의 인덱스 1에 3 삽입
   vector<int> v3 = {1,2,3,4}; // {1,2,3,4}, int형 vector v3 생성, 1,2,3,4로 초기화
   v3.erase(v3.begin()+2); // {1,2,4}, vector v3의 인덱스 2 제거
   vector<int> v4; // {}, int형 vector v 생성
   v4 = v3; // \{1,2,4\}
   cout << v4[0] << v4[1] << v4[2] << '\n';//124
   v4.pop_back(); // {1,2}, vector v4의 끝에 있는 값 삭제
   v4.clear(); // {}, vector v4의 모든 값 삭제
   }
```

v.begin(): vector v 시작점 주소

v.begin()+x: vector v의 인덱스 x 주소

v.end(): vector v의 끝+1 주소

STL의 iterator 개념 추가 공부 필요, vector<int>::iterator 타입

vector에서 =를 사용하면 deepcopy 발생. v4=v3; 이후 v4를 바꿔도 v3에는 영향없음.

• 깊은 복사(Deep Copy)는 '실제 값'을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복사하는 것을 의미하며, 얕은 복사(Shallow Copy)는 '주소 값'을 복사한다는 의미입니다.

# **얕은 복사**의 경우 주소 값을 복사하기 때문에, **참조하고 있는 실제값은 같습니다. (원본** 을 **참조함)**

insert, erase는 배열과 비슷하게 시간복잡도 O(N) push back, pop back는 O(1)

range-based for loop : vector에 있는 모든 원소를 순회하는 방법 c++11부터 지원하며, vector 외에도 list, map, set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.

```
vector<int> v1 = {1,2,3,4,5,6};

//1. range-based for loop (c++11부터 지원)
for(int e : v1) //e에 v1의 원소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for문
    cout << e << ' ';

//2. not bad
for(int i = 0; i < v1.size(); i++)
    cout << v1[i] <<' ';

//3. WRONG, 쓰지마세요
for(int i = 0; i <= v1.size()-1; i++)
    cout << v1[i] << ' ';
```

range-based for loop를 쓸 때 주의점

1.

int e: v1이라 하면 v1에서 복사된 값이 e로 들어감

int& e : v1이라 하면 v1의 원본이 e로 들어가기 때문에 e를 바꾸면 원본인 v1에서도 해당 원소의 값이 바뀜

2.

기본적으로 vector의 size 메소드는 시스템에 따라 unsigned int 혹은 unsigned long long 을 반환한다.

3번 WRONG case에서 v1이 빈 vector일 경우 v1.size()-1은 (unsigned int)0 - (int)1이고, unsigned int와 int를

연산하면 unsigned int로 자동 형변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산 결과는 -1이 아니라 4294967295가 된다.

### (unsigned int underflow!)

```
#include <bits/stdc++.h>
 using namespace std;
 int main(void){
     string word;
     cin >> word;
     int a[26] = \{0,\};
    // for(int i = 0; i < word.length(); i++)
    // {
    //
           a[word.at(i) - 'a']++;
    // }
     for(auto c : word) //auto를 적으면 굳이 자료형을 적어주지 않아도 됨
         a[c-'a']++;
     }
     for(int i = 0; i < 26; i++)
         cout << a[i] << " ";
     }
 }
```

범위기반 for문 (range based for)에서 auto keyword 사용가능